



대한설비공학회 여성설비위원회, 2017년 제3회 정기회의 개최

대한설비공학회(이하 설비공학회) 여성설비위원회(위원장 심기석)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역삼동 소재 과학기술회관 설비공학회 회의실에서 2017년 제3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의 소식과 더불어 설비공학회 하계학술발표회 여성설비위원회 특별세션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심기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설비공학회 산하 위원회 중 여성설비위원회의 참여율이 가장 높다. 평택, 대전, 음성, 일산 등 멀리 다양한 지역에서 참석하여 감사하다. 높은 참여율은 관심이고 정성이다. 우리 위원회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여성 설비인들이 그만큼 외롭고,

“
설비공학회 회장 재임 시절
여성설비위원회 설립을
주도했는데, 지난 2년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로
성장하여 큰 보람을 느낀다!
”



박종일 교수(동의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소통 창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여성설비위원회가
쑥쑥 커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원을 해달
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종일 동의대학교 건축설비공학과 교수(전 설
비공학회 회장)의 ‘설비의 역사’ 특강이 진행됐다. 박종
일 교수는 특강을 통해 고대·중세·현대 시대의 세계
적인 난방·위생·공조설비 발전사와 우리나라 설비의
변천사를 설명했다.

박종일 교수는 특강 말미에 “설비공학회 회장 재임 시
절 여성설비위원회 설립을 주도했는데, 지난 2년간 다
양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로 성장하여 큰 보람을 느낀
다”며 “앞으로도 보다 폭넓고 활발하고 즐겁게 활동하
는 위원회로 발전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심기석 위원장[세일이엔에스(주) 대표이사]

여자는 여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일할 때만큼은 여
자라고 생각한 적 없다. 그만큼 프로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
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경
험했던 어렵고 힘든 것들을 후배 여
성 설비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기
에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한혜숙 부위원장[세익 대표이사]

기계설비업계도 여성 설비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여성 설비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
다. 또 원로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





박보경 총괄간사

[(주)비전ENG 대표이사]

여성설비위원회 회원이 50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전문성을 확고히 할 때 기계설비업계의 인식도 높아질 것이다. 바빠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은 다른 곳에서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다른 표현이다. 여성 설비인들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업계 전체가 발전하길 바란다.



박미정 행사간사

[이노이엔지 상무]

여성설비인들은 기계설비업계의 선두주자이다. 모두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에 충실했기에 나름 각자의 영역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서경 위원

[을화 대표이사, 서경대학교 교수]

기계설비와 가스설비 시공 회사인 을화를 2000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9년부터 서경대에서 강사를 거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학교와 일,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 지적인 면과 사회적 욕망을 두루 채우지 못했다. 회사는 늘 작은 규모로 맴돌았다. 어느 날 불현듯 오너로서 직원들의 직장인 을화를 보호하고 키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4년 말부터 학교 수업을 조금 줄이고 회사 일에 매진했다.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가스설비의 경우 6개 이상의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 성과를 거뒀다. 회사가 성장하자 직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고 그동안의 방향을 뉘우치는 계기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설비위원회도 가입했다. 여러 회원님들을 보며 훌륭하단 생각이 들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정은 위원

[(주)우원엠앤이 이사]

현대건설에 다니다 최근 우원엠앤이에 입사했다. 기계설비는 내 운명인가 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기계설비와 소방설비 기술사를 땀다. 여성설비위원회를 통해 열심히 활동하겠다. 많은 가르침을 달라.



최윤화 위원[네오디씨티 팀장]

여성설비위원회를 통해 위로 뿐만 아니라 많은 배움의 계기가 되고 있다. 설비설계를 내려놓지 않도록 앞으로도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이 위원[태광공조 대표이사]

태광공조가 베트남 진출을 위해 공장 설립 등 지난 2년간 정말 바쁘게 지냈다. 그러느라 여성설비위원회에 다소 소홀했다. 회사가 자리를 잡은 만큼 이제 열심히 활동하겠다.



서정균 학술간사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여성설비위원회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하는 일도 많아져서 적극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 앞으로도 꾸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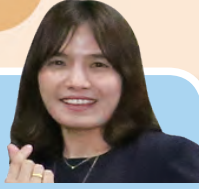
정진영 위원[영설비 대표]

여성설비위원회가 너무 좋아서 회의가 있는 날이면 열 일 제치고 평택에서 서울까지 온다. 혼자 오기가 아까워 친한 후배까지 데리고 온다. 여성설비위원회는 내 삶의 활력이다.



조혜란 위원[제이에이티 과장]

나는 일산에서 온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처음에는 부담스런 자리였다. 그러나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며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길 희망한다.



김선경 위원

[(주)세연이엔에스 이사]

그동안 여성 설계사들의 모임은 있었으나 기계 설비를 총망라한 여성 설비인들의 모임은 없었다. 2년 전 설비 공학회에서 여성설비위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너무 반가웠다. 여성설비위원회에서는 칭찬을 많이 해줘서 기분 좋다. 아마도 각자의 영역에서 힘들게 일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



김혜민 위원

[(주)성신탐엔지니어링 이사]

나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좋아한다. 나 역시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누구나 설비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설비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만큼 설비를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박주연 위원

[일송엔지니어링 차장]

설비설계가 좋아서 설계만 계속하고 있다. 여러 선배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박은미 위원

[아리-아마투렌 한국지사장]

아리-아마투렌은 에이전트 회사이다. 나는 한국지사 지사장이자 직원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은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다. 날마다 오늘 열심히 일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김지연 위원

[플렉트 우즈 코리아 과장]

김지연이란 이름은 어딜 가나 흔한 이름이다. 이름만큼 있는 듯 없는 듯 지낼만큼 활동적이지 않았다. 나이 서른이 넘고 보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있다. 요즘에는 외부 강의도 나간다.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여성설비위원회도 가입했다.



김옥란 재무간사

[선일FCS 이사]

선일FCS는 주방기구를 설계, 제작, 시공하는 업체이다. 여성설비위원회에 가입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



강민경 위원[하나기연 차장]

설계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보니 정보 교류가 적었다. 여성설비위원회는 잠재된 여성을 밖으로 끌어내는 곳이다. 또 많은 소통과 정보가 교류되는 자리이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 선 감사[서울냉열 부사장]

비전공자로서 소방장비 분야에서 15년을 근무하며 임원으로 자리 잡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최근 여성설비인 모임을 통해 여성설비인력이 늘어나고 지위도 상승되는 모습을 보면서 초창기 여성인력이 적을 때 영업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도 느낀다. 현재는 미국브랜드인 냉동기, 냉각탑 등 소방분야 및 설비 장비까지 영업하는, 여성인력으로는 매우 드문 경우라 주변 다른 여성설비인의 활동 및 진급에 좋은 영향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다.



윤경미 총무간사

[댄포스(주) 본부장]

총무간사를 맡고 있다 보니 1%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의 지도 편달 덕분에 부족하지 만 잘 헤쳐나가고 있다. 그동안 잘해왔듯이 2017년에도 더 잘하고 싶은 여성설비인들을 응원한다.